

LG상사, 탄소배출권 사업 “한발짝”

육불화황 저감 CDM 개발 유엔 승인 ... 구미 LCD공장에 도입 · 가동

LG상사가 LCD 제조와 관련된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을 유엔으로 부터 승인받았다.

LG상사는 LG디스플레이 구미 6공장의 LCD 제조공정에 맞는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2월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CD 제조와 관련한 CDM 방법론을 승인받은 것은 세계 최초로 LG상사는 2009년까지 구미 6공장에 온실가스인 육불화황(SF6) 저감설비를 구축해 시험 운전에 돌입하고 2010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LG상사가 설치할 육불화황 저감 설비는 LCD 패널 에칭(Etching) 공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육불화황을 대기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1300도의 고온으로 가열해 분해하는 것으로 실측 결과 99%이상의 처리 효율을 나타냈다.

LG상사 관계자는 “CDM 방법론은 향후 모든 국내기업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반도체 및 LCD 생산대국인 점을 활용해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육불화황을 감축할 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CDM사업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등 6개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미래 수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3>